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조중신문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5호 [루계 제23137호] 주제99 (2010)년 7월 4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
행되는 도서 『불세출의 위인
김일성동지』 전 5권 중에서
제 1권 『주체의 태양』을 조
선로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하
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역사
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
였으며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인 중의 위인 이시였다.
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 쌓으신 혁명적의 위대성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 자주주의 풍모의 비범성, 인간적 풍모의 송고성으로 보나 력사에 전무후무한 위인 중의 위인 이시였다.

천재적에 이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시대의 앞걸음을 밟아주신 사상의 풍모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을 새생시켜 주시고 그 변명의 참다운 길을 열어 주신 민족의 어버이 이시였으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최세의 형장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세계 자주화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인류해방의 구성이시였으며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풍모와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 하신 걸출한 수령이시였다.

참으로 주체의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존엄과 행복의 상정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불세출의 위인 이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광찬

란한 주체 100년사는 턱을 한

사상리가, 병도의 거장,

사에 옮겨, 어비 이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은 주체사상의 위대성이

며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

는 가장 학제적인 조선의 태양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상이

서술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

에 지니고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 시대의

새 역사를 펼치신 자주신념의

배짱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

의 위인상이 제 2장 『자주

새 역사를 펼친 위대한 수령』

을 편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납다른

안목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

시고 세계적공적인 주체사상을

여러나오는 가슴깊이 간직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한

결같은 소망을 반영하여 편찬

발행되는 도서 『불세출의

위인 김일성동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행도, 풍모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
로 한 순단에 걸이 전할

국보로 된다.

도서의 제 1권 『주체의
태양』은 4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1장 『주체의 빛발』을 안

겨준 첫세의 위인』에는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

상을 창시하여 우리 인민과

인류에게 광포로운 빛발을 안

여주신 사상리의 영예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상이

서술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수령으로 천 세만세 반들어

나온다.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생명선으로 하여 주체

혁명의 철학으로 편집되었

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남다른 안목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고 세계체계적인 주체사

상을 창시하여 우리 당과 인

민의 절대적인 신념이고 불변

의 위치이다.

천출위인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위인상을 영원

히 가슴깊이 간직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한

결같은 소망을 반영하여 편찬

발행되는 도서 『불세출의

의 전례에 기초하여 주체사상
을 독창적인 원리와 내용을 가
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탄생
시키시였다.

이로써 인류가 수없이 맞고

보낸 지난 세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 주체시대의 장엄

한 진군이 시작되었다.

사람, 인민대중을 철학적이고
철학적 중심에 놓고 자주성의 원
리를 티으로 하여 전개되고

제계화된 주체사상은 그 모든

원리와 내용의 독창성과 심오

성, 진리성과 백과전서성으로

하여 현대시에 미래를 대표하

는 가장 학제적인 혁명적인

지도사상으로 공인되게 되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대

와 교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의 강점

의 지역에 저지르는 혐오감을

모두 사상과로 선을 자주적으

로, 청조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군대에 주체사상을 확고

히 세우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으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동시에 자주의 새로운 궤도를

마련 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인민과 함께 하는 고락은

령도의 그 어떤 정치예술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인민의

영광한 민족 중에 의거하는

어버이로서의 경애하는 혁명

위대한 혁명도의 귀감을

보여주신 인민의 령도자로

서의 어버이 수령님의 위인상을

전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군대에 주체사상을 확고

히 세우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으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동시에 자주의 새로운 궤도를

마련 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그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

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

신 최대의 공적은 혁명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

이다.

그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최고수위

에 높이 모시는 최상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

제시여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

업의 영원한 계승과 종국적승

리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업적에 이어 혁명을 이끌어나가

는 혁명의 계승과 계승자에게

전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으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동시에 자주의 새로운 궤도를

마련 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인민과 함께 하는 고락은

령도의 그 어떤 정치예술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인민의

영광한 민족 중에 의거하는

어버이로서의 경애하는 혁명

위대한 혁명도의 귀감을

보여주신 인민의 령도자로

서의 어버이 수령님의 위인상을

전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으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동시에 자주의 새로운 궤도를

마련 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그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최고수위

에 높이 모시는 최상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

제시여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

업의 영원한 계승과 종국적승

리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업적에 이어 혁명을 이끌어나가

는 혁명의 계승과 계승자에게

전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으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동시에 자주의 새로운 궤도를

마련 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번영하는 조국 강산에 빛나는 태양의 모습

류체없는 비야와 혁신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격동적인 년대의 7월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활짝 풀고 워가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타오르는 이 시각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더욱 심장깊이 절갈한다.

승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사랑의 력사가 영원히라는 것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령님의 유물이 뜻이 꽂고 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16년세월 끊임없이 이어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길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넘원을 찬란한 현실로 꽂고 가는 성스러운 유훈관철의 장정이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여 청류다리 (2단계) 와 금릉 2동굴을 건설하도록 하시었으며, 낭원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철하도록 천만의 심장에 불을 지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을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잊지 않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황금이삭 물결치는 가을에 꼭 오시겠다고 뜨거운 약속, 남기신 계획별에 일꾼들을 보내시고 연변발전소건설은 인민 군대에 주신 수령님의 마지막유훈이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시며 기어이 환공하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지난 2월 그이께서 2. 8비날 론현기념소를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미인원천의 비교한 사랑을 빛내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만사람의 가슴을 세차게 친다.

가시던 걸음을 돌려세우시여 다시금 비날론생 산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장의 일꾼들과 동계급은 솟구치는 결정을 금치 못하며 눈물을 맞이하였다.

얼굴마다 격동의 눈물로 적신 그들을 한동안 뜨겁게 바라보신 후 이제부터는 공장의 대문을 벌어놓으라고, 내가 아무때나 들어와보자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



위대한 창립정신 청산 리방법 만세!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여 가리

본사기자 김종훈 쪽 음

이 없습니다. 이 비날론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면 주체의 비날론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수령님께서 이 비날론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쁘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새 비날론을 수령님께서 어서 가지고 갑니다! …

새기며 새길을 풀 위대한 수령님의 넘원을 실현하여 하루빨리 이 땅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떨발렸다.

지난 16년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육자육에는 이런 승고한 신념과 의지가 품되었으니 어찌나 땅

혹설기리는 물고기례를 보시면서도 새롭게 건설된 도로를 돌아보시면서도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보여드렸던 때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우리 장군님 나직이 외우실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뜨겁게 새기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비초소와 전호가,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 그 어디를 찾으시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곳에 먼저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님의 사적이 깃든 단위들을 찾으시여서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나갈 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토지정리된 드넓은 별에서 서시여도, 동행의 소금밭을 바라보시면서도

현대적으로 꾸려진 양어장들에

우에 인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가 즐기차게 흐르지 않을 수 있으랴.

돌이켜볼수록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 감사의 정으로 눈굽이 젖어든다.

초소와 전호가,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 그 어디를 찾으시여도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고난과 시련의 수천수만리길을 헤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코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걱정을 금지 않았다.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넘원대로 이 땅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 크나큰 고로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육은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의 농장벌그 어디에서나 간동길이 어려 빛나고 있다.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자육우에 내 조국의 토지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세워졌다.

세계 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승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이다.

국방공업을 기둥으로 하는 자립경제의 활성화와 정보산업의 농부도

또 하나 풀어드린게 된것이 너무도

아오른 인공지구성 「광명성 1호」

본사기자 김성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끼글리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
볼까가메각하

나는 르완다공화국 국경질에 즐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르완다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실히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 년 7월 1일

평양

부다페슈트

마자르공화국 대통령

슈미드빨각하

나는 당신이 마자르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 년 7월 3일

평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 진행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가 3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파번기 함경남도당 위원회 책임임비서, 투현식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표 도농동, 수홍협동장 등을 찾으시며 청진장을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1월의 추위가 온몸을 얼구는 속에 서도 어버이수령님의 토지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세워졌다.

1월의 추위가 온몸을 얼구는 속에 서도 어버이수령님의 토지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세워졌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1월의 추위가 온몸을 얼구는 속에 서도 어버이수령님의 토지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세워졌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돐 기념 보고회에서 찾으시며 토방이나 파괴된 벽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갈 길을 밝혀주시었을 뿐이니라 전후 어느 한 산골마을에 얹어장을 꾸려주시고 비행기까지 뛰워 철색송어종자까지 실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육자육이다.</p

서
사
시

조선의 불은파도

조국의 하늘이여
드넓은 대지여
너 보느냐
주체철의 불은 파도를
너들느냐
이 땅을 진동하며 꿈이치는
주체철의 거세한 흐름소리를
내 오늘 저 붉은 쇠물의 격랑에 복을 적시여
주체철의 파도를 노래하였다
주체철의 세 시대를 안아온
그 품을 노래하였다

1

푸른 파도 하얀 물이랑이
기슭에 일렁이는
동해선, 동해선에
날이 밝는다

밝아오는 새벽 노을속에
잠을 깨 갈매기들
월월 나래를 쳐어 반기는
같이 꽂이 천리길에
멀자는 달린다

철썩
쳐질썩
달리는 편자의 차마퀴를 쓰다듬을듯
밀려오고 밀려오는 파도우에
밝은 미소를 뿌리시며
성강으로 가시는 우리 장군님
성강의 해돋이를 마중하신다

기뻐하라
이 마음도 한껏 터치노라
변이 난 한해를
주체철 탄생의 고고성을
빛나게 장식한 성강이여
주체철의 환호로 밝은 빛 뿐리는
12월의 동해선이여 너도 기뻐하라

이 아침
이 해빛
얼마나 아름답고 벅찬것이니
주체철 생활체계를 완성했다는
그 자랑찬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장군님 동해선천리를 달리시거나

누를 걸 없는 경정에 휩싸여
온밤을 편차에서 지새우시며
그 이름 다시 다시 불러보신다

성강!
성강!
그 이를 불러볼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며
감회깊은 추억을 실으시는

우리 장군님

성강, 그 이름은
우리 수령님
조국의 부강을 위해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가슴속에 안고 사신
열렬한 사랑

크나큰 밑을
얼마나 좋으랴
주체철 출강식이 기다리는 이 길을
수령님 모시고 간다면

얼마나 환희로우라
수령님 한평생 그토록 바라시던
그 주체철이 나왔다고
뜨거운 담소를 나누며
이 길을 간다면…

우리 수령님 수없이 오가시며
정답게 안아보시던
이 산천이 바다우에 그리운 마음
얹으시며

이 나라 주체철력사의 막을 여시듯
조용히 창가림을 젖히시는 장군님

앞에서 달려와 뒤로 멀어져가는
침목과 침목을

수령님 주체철을 위해 넘고 넘으신
사연많은 네대들인가
그 날과 달들이
궤도우의 일어선다 일어선다

온 강산이 조국해방의 희열속에
울고 웃을 때
우리 수령님
북방의 숨죽은 공장을 찾으시여
로동계급부터 만나주시었으라

-나는 산에서
빈 배낭 하나밖에 지고온것이 없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장에서 싸우다
보니
야금학을 들여다볼새도 없었다

하지만 장차 나라가 광복되면
우리의 원료, 우리의 연료를 가지고
우리 식 제철제강을 해야 한다는
그 결심만은 안고 왔다

쓰라린 식민지 산업의
녹슨 파철더미를 들어내고
자립적 민족 산업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그 벌써 가슴속에 주체철을 암으신
수령님

진국의 초경길로부터
자립경제의 억센 터전을 다지며
천리마대 고조를 불러오던 그 나날
철의 전선에 속도전의 열풍을 일으키던
70년대와 80년대의 그 나날…

성강의 강철문제를 놓고
달리는 편차안에서
긴급협의회를 소집하던 수령님
특별지령을 내리시였다

서부한전에서 성강으로
삼화철생산용 무연탄화차 1번선으로
무산에서 성강으로
삼화철생산용 정평화차 1번선으로

제 바다가 푸른 숲숲도
눈발 달리는 아스라한 절벽도
수령님의 인민행렬차
그 기적소리의 메아리를
오늘도 고이 간직하고 있으리

그 뒤가 다 알수 있으리
그 뒤가 다 해야할수 있으리
성강의 오늘을 위해 걸고 걸으신
수령님의 헌신의 길을

후대워오는 눈길을 드시여
노을비친 차창에 어려오는
성강의 낯익은 얼굴들을
한사람 한사람 떠올리시는 장군님

가실 때마다
로앞에 가끼니 오시면 안된다
불길 앞을 막아서면
해병 출신의 짚은 용해공
천정기 중기 작은 창궐에
해당파 피워놓고 기다렸다던
그 처녀기 중기 운전공

그 손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싶으셨다

얼어질듯 달려오던
입군들과 기술자들…
주체철에 문에 아끌타를 애쓰던 모
습들을

한풀에 다 앙아주고 싶으셨다

못잇을 그날의 그 이쁜 새벽
눈석이에 질적이는 구내길을 걸으며
술죽은 진로에
로동계급의 심장에 지펴준
성강의 봉화!

그이의 마음속에 들려온다
『고난의 행군』길에 지펴준 그 봉화를
10여년 하루같이 추켜들고
시련의 진펄길을 밟히며 걸어온
성강의 그 발자국소리 발자국소리

마른 길에는 아무리 걸어도
자욱이 남지 않지만
진검은 두렷한 자욱이 세겨진다는
그 진리를 암고 걸어온 신념의 발
자국소리

성강의 그 발자국소리

그 진리를 심장에 새기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녀인들과 아이들…

주체철 그 하나에
마음도 뜻도 고락도 같이 한 성강
오늘은 주체철 불보라를 터치지 않
았더니

생각할수록
가슴뜨는 뜻잇을 성강길
수령님의 사상

령도자의 뜻을 철석같이 믿고
심장으로 따른 사람들을

주체철 한생의 만세소리를 높이 올
린 승리자들

장하다, 성강이여
장하다, 성강의 로동계급이여
조국은 그대들을 기억하리라
그대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으
리라

사랑하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보시며
펼치의 짐무실을 천천히 거니시는
장군님

마음껏 꽂퍼우며 김일성종합
대학을 졸업하고 근 50년간
후대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지
혜와 열정을 다 바치었으며 학
위학적 소유자들을 수많이 키워

나날 리승빈은 이역땅에
본사기자 힘 학 락 책 음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주체형의 세 인간으로 태여나
주체철의 첫 주인으로 자리난
성강의 영웅들에게 인사를 보내신다

이 나라 야금사에서
폭스라는 말을 영영 매장해버린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신다

저기 활황 타오르는
불노을 이고 선 성강
조선의 하늘에
주체철의 화광을 절친 성강

그이 앞에 삼가 인사드리며
가끼니 가끼니 마주온다

제솟는 바다
주체철의 불노을이
더 밝게 비긴 동해바다
역사의 이 장엄한 불노을을

파도의 물머리여, 더 높이 빛들어
울리라

철썩
쳐질썩…
파도소리 파도소리

제 바다가 푸른 숲숲도
눈발 달리는 아스라한 절벽도
수령님의 인민행렬차
그 기적소리의 메아리를
오늘도 고이 간직하고 있으리

그 뒤가 다 알수 있으리
그 뒤가 다 해야할수 있으리
성강의 오늘을 위해 걸고 걸으신
수령님의 헌신의 길을

후대워오는 눈길을 드시여
노을비친 차창에 어려오는
성강의 낯익은 얼굴들을
한사람 한사람 떠올리시는 장군님

그리워
웃걸리게 장군님 그리워
밤을 모는 철의 기지
공장문에 물결치며 흘러드는
발걸음 발걸음을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을 나누고 싶어
힘든 일이 있어도 힘을 얻고 싶어
찾는 곳
나도 섰노라

《성강의 파도》, 한폭의 그림앞에
그 순간 성강의 로동계급
가슴을 뒤흔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에 허리를 치운다
새 생명이 태동하는 숨결인양
탄생의 고고성인양
찾는 곳
나도 섰노라

그것은 장군님 보내주신
산소분리기가 산소를 내뿜는 소리
아, 이것이
인간이 산소없이 살수 없듯
주체철을 살리는 산소!

그때 우리 디는 몰랐어야
성강의 봉화를 안겨주신 장군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성강의 파도》를 보내 주시었는지

장군님 심증엔 고래치고 있었다
수령님 내놓으신 우리 식 암금법
그것은
삼화철 더하기 주체사상
그 담은 주체철!

이것을
위대한 전리
위대한 법칙으로
온 넘. 온 심장에 세겨안고 헤쳐가는
그 깊은 아직 암금공업의 긴긴 역사에

네는 정녕
장군님 에지의 빛발속에 태여난것
그 생명선이 있었기에
거창히 일떠선 주체철의 심장부

산소용융로와 정령로여
태여난 주체철이여

아무리 멀고 협난해도
기어이 가야 할 길
수령님의 뜻을 끌기까지 밟들이
거센 파도와 같은 정신력으로
헤쳐갈 이 길만이

성강이 일어서고
조선이 강대하게 일어서는 길

그이 조선화를 성강에 보내주자
주체철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성강은

파도가 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치칠 모를는
공격형의 파도를 주자!

오, 성강
일어서라 성강아
파도가 되라

성강의 뜻을 밟아온
성강의 파도를 풀어놓고
성강의 봉화를 밟아온
성강의 심장부

여기 보자
통마를 쓸어보자
여기 보자
통마의 기yle에 얼굴을 묻어보자
차체에 불을 비비며 불을 비비며
고마음에 흐느끼면 격려의 날이여

철컥, 철컥여…
장군님 보내주신 기판차에
화차들을 험험하는 그 음향
위대한 평강의 크나큰 사랑의 심장
에서

천만심장에 파도처럼 격랑이여
장군님의 그 깊은 뜻을

그날부터 우리는
꽝꽝 가슴을 두드리는
열정의 화폭을
피끓는 심장의 벽에 걸고 살았거니

성강의 파도여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더니
실패와 좌절의 깊은 곳에서도
너 어떻게 높은 마루에 올라섰더니

높아오는 파도소리
못잊을 그 나날의 추억을 불러낸다
그리면 떠오른다
간고했던 그밥이

시험의 출강을 하던 그밥
하늘땅을 헤恂들던 물과 불의 폭발
소리
로의 동체는 폭풍에 휘말려 어디론지

남려가고
공장지붕도 들리운 척
남은 것은 상당한 철골기둥

이때 누구들이냐
캄캄한 어둠속에서
서로 부르고 찾으며
서로 부둥켜안으며
여기서 저기서

횃불을 추켜들고 모여오는 사람들
혹은 누구들이냐
캄캄한 어둠속에서
서로 부르고 찾으며
서로 부둥켜안으며
여기서 저기서

횃불을 추켜들고 모여오는 사람들
어버이 장군님을 믿은 성강
오늘도 성강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
며 털려온다

-그 누가 주체철을 부정한나해도
나는 성강로동계급이 주장하는
주체철생산체계를
한순이 아니라
쌍수를 들어 지지합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있어
이 절대 불변의 지지속에
폭풍을 안은 파도와 같이

옹옹 일어선 성강
정녕 주체철이여 너는
장군님은 동계급을 믿고 따를
로동계급은 장군님을 믿고 따를
그 신념과 의리속에 태여난
일심단결의 결정체

흔연일제의 불은 파도
흔연일제의 불은 파도

수령님 짐장속에 시작되어
장군님 짐장속에 태여나 끓어번지는
주체철의 폭포 성강의 파도여
주체과학의 승리를 떨치며
폭풍치자

철썩 철썩
쳐질썩...
제2회

해돋이 해돋이
차체를 살리는 산소!

그때 우리 장군님
오늘을 내보사고
성강에 산소분리기를 보내주시였구나
바로 이것이 주체철의 생명선
그 숨결이며 맥박
장군님 안겨주신
산소를 쳇출기마냥 호흡하며

태여난 주체철이여
너는 정녕
장군님 에지의 빛발속에 태여난것
그 생명선이 있었기에
거창히 일떠선 주체철의 심장부

산소를 찾기만 해도
주체철을 살리는 산소!

그때 우리 장군님
오늘을 내보사고
성강에 산소분리기를 보내주시였구나
바로 이것이 주체철의 생명선
그 숨결이며 맥박
장군님 안겨주신
산소를 찾기만 해도

주체철을 살리는 산소!

그때 우리 장군님
오늘을 내보사고
성강에 산소분리기를 보내주시였구나
바로 이것이 주체철의 생명선
그 숨결이며 맥박
장군님 안겨주신
산소를 찾기만 해도

주체철을 살리는 산소!

그때 우리 장군님
오늘을 내보사고
성강에 산소분리기를 보내주시였구나
바로 이것이 주체철의 생명선
그 숨결이며 맥박
장군님 안겨주신
산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마련해 주신 불멸의 업적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속에서도 추호의 도도도 없이 광범위 전진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조국통일도업적을 떠나 생각 할 수 없다.

역사적인 7·4 공동성명발표 38돐을 풀기며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은 온 거에는 빛나는 예지와 숭고한 믿음에 힘입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이켜 보고 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생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대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통찰력, 숭고한 믿음에 대한 도량을 지니고 통일위업수행의 굳건한 조석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자주의 궤도를 따라 출기하게 전진할 수 있게 하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팎의 정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 유리하게 전진되어 가고 있었다. 비범한 선결지명으로 변화무쌍한 정세발전의 추이를 깊이 깨닫고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0(1971)년 8월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들과 아무거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하였다. 폭넓은 협상방안은 나라에 대한 수령님께서 밝힌 신념, 남조선당국자들의 급소를 찌르

고 그들이 북남대화와 접촉을 더는 부정해 나올수 없게 한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방안이었다. 하여 이 시기 들어서면서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접촉파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주체 61(1972)년 5월에는 양정에서 북남교류정지회담이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3일 북과 남교류정지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순간 남측대표는 백두산의 전설적영웅이시고 강철의 영장이신 우리 수령님앞에서 당황하고 황송하여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눅이 들어있는 그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면서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개의 민족으로 갈라지는 것을 허용할수 없으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의 통일강령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협상을 바쳐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는 통일문제해결의 결단으로 필수 있는 기본원칙을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성방이 합의하여 세운 기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펼쳐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오랜 기간 무르익히오신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 60(1971)년 8월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들과 아무거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측대표는 자리를에서 일어나 정중한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힌 신념, 남조선 3대원칙에 전적인 의의를 표시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한조항, 한조항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사의 그날에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참으로 공명정대한 것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남측대표는 거듭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겠다고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조국통일 3대원칙은 전체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 어려울 때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세우는 것에 좋겠다고 말씀하였다. 담화는 삼태성도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제시해 주십시오. 어버이수령님의 풍랑임을 끌어온 남측대표는 이를 허락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 시대, 6·15 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른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10·10 선언을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제시해 주십시오. 어버이수령님의 풍랑임을 끌어온 남측대표는 이를 허락해 주고 있다.

언론인은 『조선로동당』에 빛나는 업적을 수놓을수 있은 것은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한 언론인은 『조선로동당』에 빛나는 업적을 수놓을수 있은 것은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혁사의 그날에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풍랑임을 끌어온 남측대표는 이를 허락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활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화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 누구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격찬하였다.